PROJECT N
Korea

PROJECT N 월간소식지

What We Do

14

2020 March
Project N newsletter



01 This Month - 4P

02 INSIDE News - 5P

03 Culture N - 7P

04 Focus on -10P

05 Photo N - 12P

06 Thank you SO much - 18P

07 congratulatioN - 21P



발행처
프로젝트엔 코리아
주소
(04083)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3층
대표번호
02-6351-1772
팩스
070-7602-0193
발행인
이명재
발행일
2020년 3월 03일
기획
프로젝트엔 운영지원팀
편집 및 디자인
프로젝트엔 디자인팀 유창원

홈페이지
www.project-n.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PROJECTN.KOREA
유튜브
https://youtu.be/8nhdT8zR1XY

<Cover story>
해가 길어지고 있는 요즘.
따스한 햇살처럼 모두에게 따뜻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프로젝트엔 코리아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기구의 펀딩 가운데 대면모금 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경없는의사회, 옥스팜, 유니세프의 파트너입니다. 지난 시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국제구호기구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엔 코리아는 2016년 서울 본사를 설립하였으며, 2017년 프로젝트엔 부산, 2018년 프로젝트엔 대구, 그리고 2019년 프로젝트엔 광주를 런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This month

그동안 프로젝트엔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02月

02.07



Safety Work

펀드레이징이라는 대면업무의 특성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프로젝트엔은 조금 더 신중하고 철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지급되었던 마스크에 추가로 마스크를, 그리고 청결을 위한 손소독제를 멤버분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충분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한 오늘, 이 어려움이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희망합니다.



Director's Meeting

프로젝트엔에서는 월간단위로 다양한 미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본사에서 진행된 이날은 미팅은 디렉터님들 뿐만 아닌, 각 지역의 교육담당 매니저님들께서도 한 자리에 참석해주셨습니다. 현재 업무진행에 있어, 좋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02.13

02.18

JANDI

업무메신저 'Jandi'

프로젝트엔의 규모가 커지며, 그에 맞는 업무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메신저에도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엔인데요. 업무메신저 <잔디>의 본사에서 우리의 서울본사를 찾아주셔서, 잔디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일정기간의 테스트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활용 될 예정입니다.



OXFAM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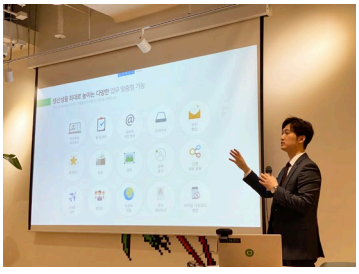
매주 미팅이 진행되는 화요일. 옥스팜 코리아에서 프로젝트엔을 찾아주셨습니다. 옥스팜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의견공유, 그리고 간단한 시상이 이어졌던 이날은 기구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우리는 제3세계에 직접 전달되는 일에 대한 소통이 가능했던 소중한 시간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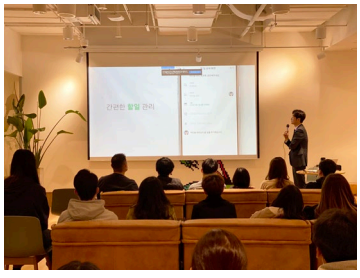
Inside News

한달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집중해서 볼 뉴스! 과연 어떤 소식이!



업무메신저 'JANDI'





프로젝트엔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에 맞는 업무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중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업무메신저의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업무메신저 <잔디>로의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2월 13일(목) 잔디메신저 본사의 담당 선생님께서 잔디에 대한 설명 및 다양한 교육을 위해 저희 프로젝트엔 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익숙한 장소인 서울본사 타운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날의 교육은 지점도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사용이 편한 잔디 메신저는 국내 유수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최적화되어있는 메신저이며, 기존의 K메신저는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사생활과의 분리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미흡했던 점이 많았던게 사실이었는데요.

잔디메신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클라우드등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으며, 메신저의 기능도 업무에 맞춰진 융통성 있는 기능들과 각 부서 및 팀별로 대화, 관리하기 편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프로젝트엔의 업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우리인 만큼, 그 상황에 맞춰진 어플 사용법 등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였는데요. 아직은 익숙지 않은 멤버분들이 담당선생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었던 시간도 가졌습니다. 체계적인 업무시스템 확립을 위한 변화는 이 잔디 메신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잔디 메신저는 프로젝트엔의 오피스에서 일정기간의 테스트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Inside News

한달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집중해서 볼 뉴스! 과연 어떤 소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를 위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2월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려가 큽니다. 업무뿐만아니라 일상생활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요즘 일텐데요. 대면으로 업무하는 프로젝트엔의 직무특성으로 인해 멤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프로젝트엔에서는 가장 먼저 마스크를 주문하였습니다. 오피스팀을 비롯한 모든 지점에 전달 완료되었으며, 우선적으로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의 마스크를 지급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업무간 더욱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아토렌 프리미엄 손소독제를 전달하였는데요. 프로젝트엔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손소독제를 비롯해, 우리의 기관들로부터 멤버분들을 위한 소독제 지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마스크착용과 손소독제의 의무화로 멤버분들의 건강과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시민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기존에 지급하였던 마스크의 소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스크의 재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수량보다 더욱 많은 수량이 지급되었으며 품절로 인해 마스크구매가 어려운 이 시기에 다행히 구매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업무시의 위생도 중요한 요즘, 일상생활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을텐데요.

멤버분들의 면역력향상을 위해 홍삼스틱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모두에게 잠깐의 웃음으로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프로젝트엔에서는 멤버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이번 사태를 국가적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Culture N

쉬는 날, 혹은 틈틈히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로젝트 엔에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Culture N

01

Art Exhibition -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 - 핀란드 디자인 10 000년

국립중앙박물관과 핀란드국립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지난 10 000년 동안 핀란드 지역에서 변화무쌍하게 발전한 물질과 문화, 기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연대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시대 구분에 따른 분류학 체계도 따르지 않으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빙하기 이후, 10 000년의 시간 동안 핀란드 지역에서 살아간 사람들, 이들이 활용했던 수많은 사물들을 전혀 다르게 분류하여 살펴봅니다.

전시기간: 19.12.21 - 20.04.05, 10:00-18:00 (월요일휴관)
관람료 : 성인-3,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2,000원
위치 : 국립중앙박물관 - 용산구 서빙고로 13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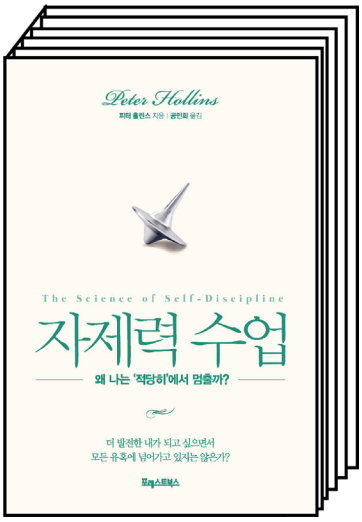
Movie - 가버나움



<다수의 국제영화제 수상>
- 48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관객상
- 12회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 감독상
- 29회 스톡홀름영화제 최우수 각본상
- 41회 밀 밸리 영화제 월드시네마 - 금상
- 71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줄거리>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출생기록조차 없이 살아온 어쩌면 12살 소년 '자인'으로부터

감독: 나딘 라바키
배우: 자인 알 라피아, 요르다노스 시프로우 등
관람등급 및 상영시간: 15세 관람가, 126분



03

Recommend Book - 자제력 수업

"의지만으로 되는 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저자: 피터 홀린스
금액: 14,000원
출판사: 포레스트북스

<책소개>

왜 누군가는 '적당히'에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의지와 자기절제의 심리학

거창한 꿈보다는 곁에 있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기를 권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세워 놓은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조건 아래에서 한계를 마주한 순간 포기를 선택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재능,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 내세울 것 없는 스펙, 타고난 흙수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걸까?

인간의 내밀한 심리를 특유의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던『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의 저자 피터 홀린스가 이번에는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자신이 설정한 한계를 돌파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자질인 '자제력'을 제안한다. 그가 설명하는 자제력은 단순히 '노력하고 참는 힘'이 아니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위대한 힘인 동시에, 즉각적인 만족감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멈추지 않고 마주친 한계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내딛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환경이나 유혹, 충동 등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바로 단념하는 대신 자제력을 발휘하여 극복한다. 홀린스는 그들을 분석하여 자제력이 실제로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형성되며 우리는 지금까지 왜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지를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깨워 준다. 나아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제력을 더 단련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열한 가지 요소를 통해 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저자소개>

피터 홀린스

미국에서 주목받는 심리학자이며,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한국 독자들에겐『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The Science of Introverts』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주목받은 논문은 언어습득과 신경과학에 대한 것이지만,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의 중간 지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일은 그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경험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Focus On







Fundraising을 위해, 모든 지점에는 매니저님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구매니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Daegu,
KOREA

프로젝트엔 대구 PROJECT N Daegu Office Team

프로젝트엔
Daegu Office

Q. 안녕하세요 매니저님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
은지: 안녕하세요. 대구지점 운영지원팀에서 장소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박은지입니다.
종혁: 안녕하세요. 프로젝트엔 대구지점 노종혁입니다. 프로젝트엔에 대구지점 운영지원팀과 함께한지 8개월이 되었고, 업무는 인사채용과 신입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리: 안녕하세요. 대구지점 운영지원팀에서 인사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두리입니다.

Q. 반갑습니다 프로젝트 대구오피스 여러분:) 프로젝트엔 대구지점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려요!

공통: 프로젝트엔 대구에는 PA팀과 UQ팀 두 개의 팀이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활동중입니다. PA팀은 이왕수 디렉터님을 주축으로 프로젝트엔 대구지점이 시작되었을 당시부터 대구를 지키고 열심히 성장하기 위해서 활동중입니다. UQ팀은 성장과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부산에서 대구까지 이동해 달려온 열정 가득한 팀입니다.
두개의 팀은 각자의 색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펀드레이저라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도전의식, 끈기, 가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멋있는 팀입니다.

Q. 열정 가득한 프로젝트엔대구지점. 최근 오피스를 이동하였는데, 어떤 점이 바뀌셨나요?

공통: 오피스 이전 후 가장 큰 장점은 장소 활용에 대한 자율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 공용사무실에서는 회의실에 대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너무나 커서 인사채용 및 신입교육, 팀미팅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나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사채용, 신입교육, 팀미팅을 진행할 시 장소나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에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기관지도 좋아지는 느낌이며, 기존에 사용했던 공유오피스에서는 청소를 해주시는 이모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해야하는 부분이 바뀐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가 개방적인 구조이다보니 서로의 업무에 대해 조금 더 오픈이 되었다는 점과 그와 별개로 더 조심히 업무를 해야한다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업무포지션이 다르다보니 이에 대한 충돌은 서로에 대한 배려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공유오피스와 단독오피스의 장단점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들로 넘어갈게요. 먼저 채용에 대해 이야기 해볼텐데요. 채용 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두리: 저는 대구 지점을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인원들이 입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의 색깔에 맞게 채용하고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먼저 열람하고 콜링을 할 때에도 구직자의 성향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펀드레이저 업무는 외향적이시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남다르신 분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며, 또한 CS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분들에게 면접제안을 드립니다.

Q. 이렇게 두리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신 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교육이죠. 교육하실 때에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시나요?

종혁: 신입교육은 먼저 활동하고 있는 FR선생님들을 위해 더욱 더 탄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FR선생님들은 본인들의 업무시간에 트레이닝을 같이 진행하셔서 여러 고민을 가질 수 있기에 오피스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신입교육은 신입선생님이 필드로 가기 위한 과정을 그리는 그림의 첫 초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론이더라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론으로 교육함으로써 조금 더 업무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중입니다.
또한, 신입선생님이 아직 프로젝트엔 이라는 회사의 매력을 모르기에 회사의 소개와 방향성을 알려드리며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고 노력에 의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이 업무를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하고 저와 같이 매력과 재미, 메리트를 느껴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신입교육 가치관입니다.

Q. 채용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장소업무 역시 우리의 업무의 필수요소입니다. 다양한 업무방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매니저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은지: 모두가 아시다시피, 프로젝트엔에서는 세가지의 업무방식이 진행되는데요.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B2B업무, 스트릿업무, 그리고 이벤트업무로 진행하게 됩니다. B2B업무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우선 스트릿업무 진행 시에는 상위 리더님들이 실제 필드를 운영하기 한 주 전에 저에게 운영 계획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타에이전시와의 충돌을 막고자 조율된 가이드라인대로 다시 검토를 한 후에 본사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본사에서 기관에 연락해 장소를 조율해주시죠. 이렇게 최종 승인된 장소로 스트릿업무가 진행됩니다. 이벤트 업무는 각 채리티 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장소 담당자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싶은 관공서, 병원 등에 연락을 취한 후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 협조 공문과 제안서를 발송합니다. 이벤트 최종 승인이 나면 기관에 보고를 드리고 회사 내에서 이벤트 진행 팀을 선정해 해당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엔은 기관과의 협약을 준수하며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프로젝트엔의 계획하고 증명한다는 슬로건과 맞는 업무방식으로 보입니다. 대구지점이 생각하는 프로젝트엔은 어떤 회사인가요?

공통: 펀드레이저를 위한, 펀드레이저 위주의 회사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FR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이 업무를 도전하고 시작하는 신입 선생님들이 적응하기 좋은 회사이고 FR이라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감사합니다 대구코리아! 끝으로 한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은지: Fighting!
종혁: 끝!
두리: 벌써 프로젝트 엔이라는 회사에 입사한지 8개월이 되었네요. 그간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들었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밑거름이 되어 저희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때 옆에서 응원해 주고 힘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Focus On



Photo N

Together PROJECT N

코로나19로 인해 단체생활이 지양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월초에 진행되었던 디렉터미팅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입니다.



오피스 전체 미팅모습입니다.



진지한 분위기로 임해주시는 매니저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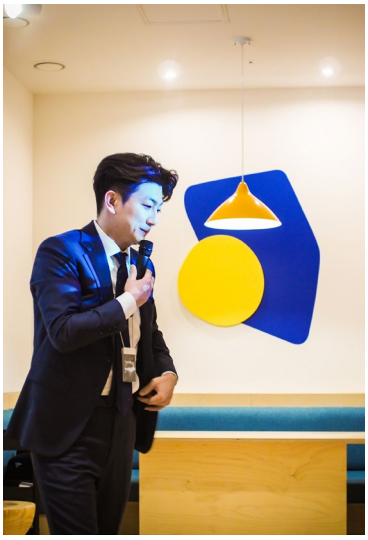




채용 및 교육을 담당해주시는 매니저님들



매주 화요일 진행되었던 전체미팅.



항상 진행해주시는 대표님



지점을 포함해 많은 인원이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팀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는,
그만큼 함께하는 자리가 많았었는데요.
이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희망합니다.

PROJECT N KOREA

Fighting!



Thank You *SO* Much

업무가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후원자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에게 큰 힘과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의 원동력이 됩니다.

후원자님들께 직접 듣는 기분좋은 메세지!

Thank You So Much



Seoul, AM

김석주 Team Leader

"어제 설명해주신 분이 너무 잘 하시더라구요. 날씨도 춥고 힘드실텐데 정말 기쁘게 업무하시는게 눈에 보이더라구요. 참 열정적으로 한다는게 느껴졌어요~ 저도 큰 금액은 못해드리지만, 후원금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네요~어제 설명하시느라 너무 수고많으셨구 후원 그분덕분에 했으니 꼭 칭찬 부탁드려요~"



Gwangju, WF

유민환 Team Leader

"요즘 코로나로 일반 사람들도 병원에 오기 안좋아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였어요~좋은곳에 잘 사용될꺼라고 믿기에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담당학생이 참 친절하게 이야기해줘서 후원에 대해 고민하다가 참여하게 되었으니 그 친구 고생했다고 전해줘요~고마워요"



Gwangju, WF

박정민 Leader

"아이와 함께 있어 정신없고 산만했는데 한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를 봐주시고 담당선생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주셔서 집중있게 듣고 후원할수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있다보니 부모로써 걱정도 되고 불안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워낙 싹싹하고 친절하셔서 기분좋게 후원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Busan, Unique

이아진 Leader

"밖에서 춥고 힘드실텐데 친절하게 잘 이야기해주셨어요~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것도 힘든데, 차근차근 설명 잘 하더라구요. 좋은일 한다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보고 대견하더라구요. 잘 하셨다고 칭찬한다고 전해주세요."



Busan, Unique

방민주 Leader

"설명해주신 선생님께서 제 아이에게 참 잘 이야기해주시더라구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아이기 집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ㅎ 그래서 저도 기분좋게 후원신청했구요 너무 수고많으셨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이에게도 좋은 경험이된 거같아서 좋구요. 고마워요~"



Seoul, AM

공태환 Leader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후원하는데 많이 도움주셔서 저도 믿고 후원서 작성했어요~ 설명도 재밌게 잘 해주셔서 듣는동안 이해하기도 쉬웠구요. 보통 개인정보를 쓴다는게 쉬운일은 아닌데, 그 분이 말씀 잘 해주셔서 믿고 썼어요~ 감사하구 응원한다 전해주세요~!"



Gwangju, WF

김영빈 Leader

"설명 너무 잘들었어요~사실 관심도 없었는데 훤칠한 청년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없던 관심도 생기더라구요^^어려운일에 적극적인 홍보하느라 힘들텐데 힘냈으면 좋겠어요~설명 잘들었다고,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Seoul, AM

박민우 Leader

"너무 친절하시기도하고, 너무 예의있게 설명해주셔서 제가 어찌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만큼 저도 기분좋게 설명 들을 수 있었어요~ 좋은일 하신다고 그렇게 늦은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모습보고 진심이 느껴지더라구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많이들 불안해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구 어제 너무 수고많으셨다고 전해주세요~"



Gwangju, WF

신용석 Leader

"불편한점 전혀 없었고 친구들이 좋은일 하는 덕분에 저 또한 겸사겸사 좋은일에 동참할수 있었던거 같아요! 부디 좋은곳에 잘 사용되길 바라며 칭찬해주고 싶다고 꼭 전해주세요~"



Seoul, AM

박은영 Leader

"열심히 아주 잘 해주셨어요~다른 불편함 전혀 없었구요. 젊은 분들이 그래도 좋은일 하신다고 밖에서 고생하시는 모습보니 뿌듯하더라구요. 즐겁게 잘 이야기 해주셔서 저도 기분좋게 후원했어요~추운 날씨에 건강챙기시면서 하시라구 전해주세요~"



Gwangju, WF

류상백 Team Leader

"그날 되게 다들 잘 해주셨어요.너무 친절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쉬운일이 아니실텐데 밝게 잘 안내해주셔서 듣는 저도 기분좋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정말 친절하셨구요. 그렇게 즐겁게 좋은일 하시니 좋아보였어요. 설명도 잘 해주셔서 잘 이해하고 후원서작성했어요~감사하다구 전해주세요!ㅎ"



Seoul, AM

조성재 Director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저도 믿고 후원서 작성했어요~ 설명하시는동안 정말 진심이 느껴져서 선뜻 할 수있었던거같아요. 취지도 잘 이야기해주시고 제 후원금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주셔서 지금은 좀 뿌듯한 마음도 있네요. 너무 수고많으셨다고 전해주세요~"



Seoul, AM

서주영 Leader

"되게 친절하셨어요~너무 친절하셨구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저도 믿고 후원했어요. 요즘 바이러스때매 건강도 조심해야할텐데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니 참 뿌듯하더라구요.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많으셨다고 전해주세요!"



Seoul, AM

정준호 Leader

"어제 설명해준 청년이 참 목소리도좋고 친절하게 잘이야기해줘서 후원하게되었어요~ 젊은 청년이 좋은일에 그렇게 애쓰고있는데 칭찬해드려야죠. 안내도 자세히 잘 해줘서 언제 출금되는지랑 이것저것 잘 이야기 들어서 믿고 후원했어요. 좋은일 해줘서 고맙고 건강챙기라고 전해줘요~"



Busan, PA

백윤미 STL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구있어요~백윤미 선생님 너무 친절하게 잘 이야기해주셨구, 꼼꼼하게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원래 후원에대해 크게 생각이없었는데,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요즘 바이러스로 무섭고 힘드실텐데 건강조심하고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Busan, Unique

황정민 STL

"후원에 관심은 있었는데 방법을 몰라 늘 지나치기만 했다가 우연히 캠페이너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선생님께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부담스럽지 않고 말씀도 재밌게 해주셔서 좋은시간이였습니다. 좋은곳에 잘 사용되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대구지역 힘들텐데 응원하겠다고 전해주세요~감사합니다!"



Busan, PA

최동욱 Leader

"엄청 싹싹하셨어요~제가 원래 후원 안하고 그런 단체들도 잘 믿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설명해준 젊은 청년이 참 싹싹하니 말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후원 참여했어요~ 그러니 그때 설명해줬던 그 청년한테 이야기 잘들었구 덕분에 후원했다 전해주세요~ 고생많아요~"



CongratulatioN

개인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
프로젝트 엔입니다.
모두의 진심어린 축하 속에 진급하신 멤버분들께서 전해주시는 소감입니다.

congratulatioN

02.01~02.29 기준

어떤 분들의 이달에 진급을 하셨을까요?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Advancement _Leader

박민우 Park Min Woo
Seoul / Leader

양선진 Yang Sun Jin
Daegu / Leader

조용택 Cho Yong Taeck
Gwangju / Leader

오은호 Oh Eun Ho
Seoul / Leader

김누리 Kim Nu Ri
Seoul / Leader

박정민 Park Jeong Min
Gwangju / Leader

이송미 Lee Song Mi
Seoul / Leader

박인성 Park In Seong
Seoul / Leader

박은영 Park Eun Young
Seoul / Leader

신용석 Shin Yong Seok
Gwangju / Leader

김다빈 Kim Da Bin
Gwangju / Leader

김현성 Kim Hyeon Seong
Daegu / Leader

이아진 Lee A Jin
Busan / Leader

강병진 Kang Byung Jin
Busan / Leader

Advancement _Team Leader

이태관 Lee Tae Kwan
Seoul / Team Leader

Editor's Comment

2월은 진급의 첫 시작인 리더진급자가 많았던 한달이네요.
팀리더님을 포함해 진급하신 총 열다섯분의 리더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영향으로 인해, 업무 및 생활에 제약이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프로젝트엔은 업무시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전체미팅 및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는 지양하며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내주고 계시는 멤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희와 함께해주고 계시는 기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해가 길어지며,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따뜻한 기운과 함께 좋은 소식들 가득한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나는 얼굴들
- 필드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PROJECT N
Korea

PROJECT N
Korea

www.project-n.or.kr
facebook.com/PROJECTN.KOREA/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3층 프로젝트엔 코리아
T) 02-6351-1772 F) 070-7602-0193